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경 누가복음 12:22-34

말씀 읽기 누가복음 12:22-34

- 22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 23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 24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어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 25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 26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 27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 28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 29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 30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 31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32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 33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돈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 34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본문 배경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22절)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입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물질적인 것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만을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해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까마귀는 먹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보다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도 백합화 한 송이보다 멋지지 않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입을 것에 대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고민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루 되세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은혜의 찬양 14장)

- 1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2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3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후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2 내 영혼이 은총 입어(찬송가 438장)

- 1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 2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 3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땅에서의 필요만 채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나 세상이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선택입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관찰

1 예수님이 두 번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요?(22, 29절)

답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라며 염려하지 말라고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해설 오늘 본문은 두 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22, 29절) 즉, 세상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25-26절). 내 키가 작는데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지 않는 것처럼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28절). 하나님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들풀도 입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돌보십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세상일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세상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2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무엇을 하나요?(31절)

답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해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염려하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31절). 염려할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아야 합니다. 염려가 일어날 때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만물을 입히시는 풍성한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살기보다는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적용

1 요즘 나는 무슨 일로 염려하고 있는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말씀 암송

11-4 다만너희는 그의 나라를

누가복음 12장 31절

작곡 김혜림

♩ = 150

다 만 너 희는— 그 의 나 라를— 구 하 라 그 리 하면— 이 런 것 들을—

너 희 에 게 더 하 시 — 리 라 —

누 가 복 음 십 이 장 삼 십 일 절 — 말 씀 아 멘 —



가정에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니 염려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